

밴쿠버의 감동이 베이징의 환호로...

2010년에도 각 분야에서 다양한 별들이 작진하며 한 해를 밝혔지만 최고의 자리에서 순식간에 추락한 인물도 적지 않았다. 특히 정치권이 끊임없이 소모적인 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문화·스포츠 분야의 젊은 별들은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반면 그림자만 남긴 채 사라져간 별도 어느 해보다 많았다. 천안함 46인의 용사처럼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간직해야 할 별도 유난히 많은 한해였다.

뜬별

올해는 유난히 문화·체육 분야에서 뜬별이 많았다. 이 가운데 많은 국민은 스포츠를 통해 어려움을 날려버리고 감동과 환희를 맛볼 수 있었다. 스포츠 스타들은 국민의 가슴에 감동을 물고 온 '2010 별종의 별'이었다.

'피겨여왕' 김연아(20·고려대)는 올해 2월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월드스타'로 재확인되는 무대였다. 역대 최고 점수(228.5점)를 기록하며 한국인 최초로 동계올림픽 피겨부분에서 금메달을 따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모태범(21)이 금메달을 따낸 데 이어 여자부 500m 이상화(21)와 남자부 이승훈(22)이 12m까지 우승하며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2년 연속 3할 타율과 20-20클럽(홈런·도루 각 20개 이상) 가입을 달성한 추신수(28·클리블랜드)는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고비마다 결정적 한 방으로 승리의 환희를 선사했다. 광저우 아시안경기 수영 여자 평영 2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정다래(19·전남 수영연맹)는 깜짝 스타로 떠올랐다.

바둑 이슬아(19·홍성패어 및 여자단체 금메달)와 리듬체조 손연아(16·동메달) 등과 함께 광저우 아시안경기 '미녀 삼총사'로 인기를 끌었다. '마린보이' 박태환(21·단국대)은 아시안경기에서 남자 자유형 100, 200, 4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혼계영 등에서 은, 동메달을 2개씩 따내 아시아 최강임을 입증하며 부활했다.

17세 이하 여자 청소년 축구 대표팀은 월드컵 결승에서 일본을 연장전 승부차기로 꺾고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대회에서 한국 최초의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며 국민에게 기쁨을 선물했다. 이 대회 득점상과 최우수선수상을 차지한 여민지(17·합안대산고)는 20세 이하 월드컵 3위와 아시안경기 동메달의 주역인 '여자 메시' 지소연(19·일본 교베 아이나)과 함께 국민적 스타가 됐다. 최나연(23·SK텔레콤)은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의 상금왕과 최저타수상을 석권했다.

대중문화 부문에서는 KBS2 예능 프로그램인 '남자의 자격'에서 '오합지졸 합창단'의 지휘를 맡았던 '칼마에' 박칼린(43)씨는 실력 있는 음악 감독에서 뛰어난 리더십의 소유자로 떠올랐다.

6월 지방선거와 각 정당의 전당대회 등을 한 해 골짜기 많았던 정치권에서도 뜬 어김없이 스타는 탄생했다.

김두관(51) 경남지사와 이광재(45) 강원지사, 안희정(45) 충남지사 등 '친노'(친 노무현) 인사들은 6월 지방선거를 통해 화려하게 복귀하며 야권의 차세대 지도자로 떠올랐다.

순화규(63) 민주당 대표도 10월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집거 2년 만에 제1야당의 사령탑으로 복귀했고, 재선거에서 부활해 장관으로 약한 이재오(65) 특임장관 등을 꼽을 수 있다.

김영란(54) 전 대법관은 8월 퇴임하면서 후학을 키우는 일로 인생 제2막을 열기로 결정하면서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지구촌 뜬별

올해 지구촌이 가장 주목하고 세계 언론의 조명을 한 몸에 받은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Assange·39)가 대표적이다. 미국의 외교전문 25만여 건을 사이버 공간에 폭로해 세계를 뒤흔들었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 북의 설립자인 마크 주커버그(26)는 지구촌 6억 명을 하나로 연결해 소통의 '신대륙'을 마련한 공로로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로 등극했다.

지하 약 700m 아래 광도에서 69일간 갇혔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칠레 광부 33명은 세계에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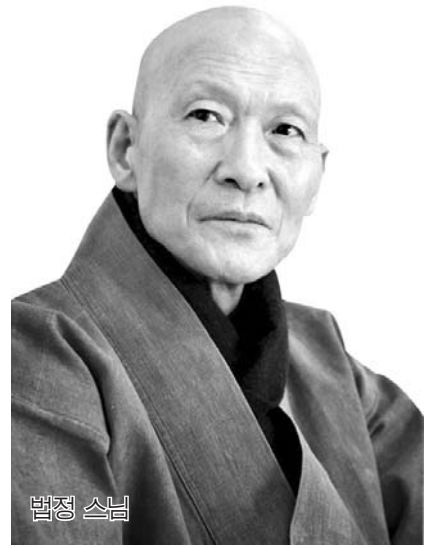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이 후계자로 급부상하며 서방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중국 반체제 민주운동가 류샤오보(劉曉波·55)는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지구촌 명사로 등장했다.

1980년부터 2001년까지 IOC(국제올림픽위원회)를 이끌어온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전 IOC 위원장이 4월 화려했던 삶을 마감했다. '눈먼 자들의 도시'를 비롯한 '도플갱어' 등을 발표하고, 1998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포르투갈 소설가 주제 사라마구(José Saramago·87)도 6월 타계했다. 1951년 발표된 자전적 장편소설 '호밀밭의 파수꾼'의 작가 제롬 데이비드 살린저(Salinger·91)는 1월 미국 뉴햄프셔에서 노환으로 타계했다.

12월 12일 '미국의 특급 외교 해결사' 리처드 홀브룩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그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했다. 40여년 경력의 베테랑 외교관이었던 그는 1977년부터 1981년까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서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4월에는 레흐 카친스키 폴란드 대통령 부부의 여객기 사고 소식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천안함 46인의 용사 '무소유' 법정스님 가슴속에 영원히...



진별



올해 다양한 이유로 빛이 바랜 별들이 많았다. '세대교체 신흥단', '농민 아들의 인생 드라마' 등 화려한 수식어를 달고 중앙무대에 등장하며 40대 총리 탄생을 예고했던 김태호(48) 전 경남도지사는 후보 지명 21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이른바 '박연재 케이트'와 관련한 해명이 석연치 않았던 탓이다.

정운찬(64) 전 국무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부결로 취임 11개월 만인 8월 총리직을 사임했고, 김태영(61) 전 국방부장관(61)은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과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등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력 문제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고 11월 26일 사임할 결심했다.

신한은행 창립의 주역이자 51년간 '뱅크'로 일하면서 한국 금융계의 '거목(巨木)'으로 평가받던 리응환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72)이 10월 30일 회장으로 물러났다. 삼성그룹의 대표적 재부흥인 이학수(64)·김인주(52) 고문과 최도성(61) 삼성카드 부회장이 세대교체에 밀려 경영 일선을 떠났다.

도덕적 비난이나 사법적 처벌의 '매'를 맞고 떨어진 별도 적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계곡공신'으로 불리던 천신일(67) 세종나모여성회장이 세무조사 무마와 대졸금의 출자전환 청탁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유명환(64) 전 외교부 장관은 이명박 정권 출범 때 인각한 최장수 장관 중 한 명이었던 팔 특채 파문으로 낙마했다.

지구촌 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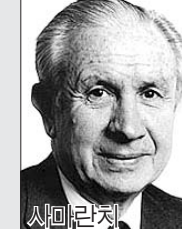
사라졌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별이 많은 해였다. 3월26일 천안함 폭침으로 해군 장병 46명이 꽃다운 나이에 전사해 전 국민을 오열하게 했다. 천안함 실종 장병을 구하다 순직한 해군특전대 한주호(53) 준위는 '살신성인'(殺身成仁)을 보여주고 떠난 '진정한 영웅'이었다.

자신이 몸담았던 분야에 긴 여운과 아쉬움을 남기며 사라진 별도 적지 않았다.

진보적 언론인이며, 언론학자인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가 향년 81세로 별세했다. 기자와 교수로 평생 진실을 추구하며 '시대의 지식인' '한국현대사 증인' 등 많은 수식어가 따라다녔던 리 전 교수는 자신의 유언대로 국립 5·18 묘지에서 안장됐다.

수필집 '무소유' 등 저서와 법문을 통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온 법정(法頂·78) 스님이 3월 입적했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도 10월 향년 87세로 타계했다. 한국 최초의 남성 패션 디자이너인 앙드레 김(본명 김봉남)씨도 8월 지병으로 일일 치료를 받던 향년 75세로 별세했다.

향년 84세로 별세한 원로 코미디언 배삼룡은 '비실이' '한국의 찰리 채플린'으로 불리며 1970년대 한국 코미디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1969년 미국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방송을 해설하면서 '아폴로 박사'란 별명을 얻은 천문학자 조경철 박사도 과학 대중화를 위해 평생을 바치던 향년 81세로 세상을 떠났다.



아이엘리시아 (아이엘리시아 검색)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500석 완비)

- ◆ 홀 : 연인, 친구, 가족(2인석, 4인석, 6인석)
- ◆ 소모임(룸) : 직장회식, 계모임(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 ◆ 대모임(룸) :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00	22,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0,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접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 활전복 전국택배 가능합니다.
-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PREMIUM BUFFET MELUSIA

아이엘리시아

유스퀘어 문화관 CGV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일곡지구 연초제조창, 롯데칠성, 코카콜라, 롯데제과, 5주유소,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금광아파트, 한림아파트, 한림아파트